

뇌신경 마비 및 척수 압박 증후군 환자에서 진단된 원발성 간암 1례

부산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류 수형*, 안 준협, 서 경수, 정 주섭, 조 군제

원발성 간암은 어느 곳이든 전이 할 수 있으나 주로 골, 간문맥, 간정맥, 대정맥 등으로의 혈관, 간주위 및 종격동과 경부 임파절, 폐 등으로 전이가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두개골 및 연수막으로의 전이는 드물며 이로 인한 뇌신경의 마비는 더욱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원에서는 두통, 요통과 양측 하지통, 허의 우측 편위와 위측, 어눌한 발음들을 주소로 신경학적 검사를 받던 중 원발성 간암이 발견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36세 남자 환자가 요통과 양측 하지통, 허의 우측 편위 및 위측, 마비성 구음 장애, 좌측 측두부 두통을 주소로 내원 하였다. 전반적으로 급성 병색을 띄었고 이학적 검사상 왼쪽 배꼽 주위의 압통을 보였다. 요부 단순 x-선 사진상 L5, S1 의 골절이 관찰되었고 두부 단순 x-선 사진상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두부 MRI 소견상 좌측 측두골에 초승달 모양의 연부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이 골과 인접한 뇌막에도 조영 증가가 관찰되었다. 또한 교연수의 집합부에서 아래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조영 증가되는 종괴가 보였고 이로 인한 설하 신경의 마비가 이 환자의 허의 우측 편위 및 위측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었다.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상에는 간의 좌엽에 저음영의 큰 종괴가 보였으며, S5, S6구획에도 작은 저음영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또한 좌측 부신과 우측 신장에도 작은 종괴가 관찰되었다. 간좌엽의 종괴에 초음파 유도하 간생검을 시행하였고 여기에서 이 병변은 원발성 간암으로 나왔으며 면역 조직 화학적 염색상 AFP이 국소적으로 양성으로 나왔다. 이에 본원에서는 원발성 간암의 두개골 및 인접 뇌막으로의 전이, 교연수 집합부의 전이로 12번 뇌신경 압박, 척추골로의 전이와 이로 인한 척수 압박등으로 진단하였고, 척수 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요통과 양측 하지통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총 3000cGy의 방사선 치료로 현저한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다. 이후 환자는 약 한달간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의식 저하 및 전신 상태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본원에서는 원발성 간암의 두개골 및 뇌수막, 교연수 집합부, 그리고 척추골로의 전이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간암에서 발생한 척수 압박의 1례

광주기독병원

*김윤아, 김원영, 강명원, 임연근, 여향순

악성 종양을 진료시 여러 가지 응급상황을 겪게 된다. 이는 종양을 일으키는 조직의 다양성 즉 광범위한 병변, 대사의 변화, 전이능력 등으로 인해 종양과 관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결과를 초래케 됨으로서 일어나고, 또한 종양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암화학요법도 약리적 독작용을 유발할수 있어서 환자를 전격적인 응급상태로 유도하기도 한다. 척수 압박은 내과적 응급상태로 취급되는데 이는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역적인 마비가 오며 장이나 방광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악성종양에 의한 척수 압박은 전체 암 환자의 약5%를 차지하고 있고 척수 압박을 유발하는 종양은 척수에서 원발하는 종양보다는 이차적으로 전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척수 침범은 대부분 경막외이고 경막외 침범인 경우는 약 85%에서 척주부위에서 생기고 약 10-15%에서 척추주위물 침범하는데 주로 림프종이나 신경모세포종에 흔하다. 경막외전이의 가장 흔한 부위는 흉추로 약 70%를 차지하며. 원인 암으로는 유방암 20%, 폐암17%, 림프종 9%, 전립선암 7%, 육종 6.6%, 다발성 골수종 6% 순이다. 이에 저자들은 간암환자에서 입원 경과중 척수 압박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8세 남자환자가 2개월전부터 간헐적으로 있어온 상복부 불쾌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위궤양 출혈로 수술한 병력외엔 특이 소견 없었으며 복부 진찰 소견상 간종대가 촉진되었다. 검사실소견에서 CBC상 정상하였고 AST/ALT/Alkaline phosphatase 92/40/179 IU/L, total protein/albumin 7.1/3.9 g/dl, total/direct bilirubin 1.1/1.0 mg/dl, α FP 23699ng/ml, HBsAg 양성, anti-HBsAb 음성, anti-HBcAb 양성, HBeAg 음성이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우측간에 종괴가 관찰되었고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상 간전반에 수많은 저에코의 종괴와 림프전이가 관찰되었다. 입원 경과 14일째 갑자기 하반신마비와 xiphoid process 하방으로 감각 소실이 나타났다. 흉추MRI상 T6흉추체의 높이감소 및 조영증강되는 종괴가 관찰되었다. 즉시 steroid치료와 응급 방사선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었고 퇴원후 사망하였다.